

“시민 심기는 공직자 배려 하겠다”

강 당선자, 광주시 조직개편안 내주중 공개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다음주 중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광주시의 조직개편과 인사쇄신, 하반기 재정운영 방안 등 인수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후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인수위 관계자는 “교수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수위가 광주시 각 실·국 업무보고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민선 5기의 밀그림을 24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 15명, 강 당선자 측근인사, 각계 자문 위원 등을 광주시 각 실·국 업무보고 및 추가보고 등을 실·국 업무보고 청취 및 토론을 지난 14일까지 모두 마쳤으며, 15일부터 본격적인 민선 5기 운영방안을 마련에 착수했다.

민선 5기 위원회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광주시 조직을 ▲의사결정 단계 축소 ▲문화·산업·도시디자인 기능 강화 ▲공직사회의 토론문화 정착 등을 위주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국의 기능 분리 및 통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인사시스템도 ▲업무상과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능력위주 발탁 ▲시민 신뢰받는 공직자 배려 등의

기준을 구체화해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민선 4기

핵심사업의 지속시행 여부도 이날 발표한다.

한편 강 당선자는 이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사는 때가 되면 법과 논리에 따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는 구상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은 16일 광산구 첨단지구 에스디엔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주식청 약서를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이준열 이사에게 전달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 관사 교체

광주시장 관사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에서 서구 마륵동이나 쌍촌동 소재 아파트로 바뀔 전망이다.

광주시는 16일 “현재 관사로 쓰이는 아파트는 건립된 지 12년이 지났으며, 8년 전 박광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사용해왔으나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했을 때 관사를 새로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어등산 개발 불발탄 제거작업 재개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육군보병학교의 불발탄 제거작업이 16일부터 재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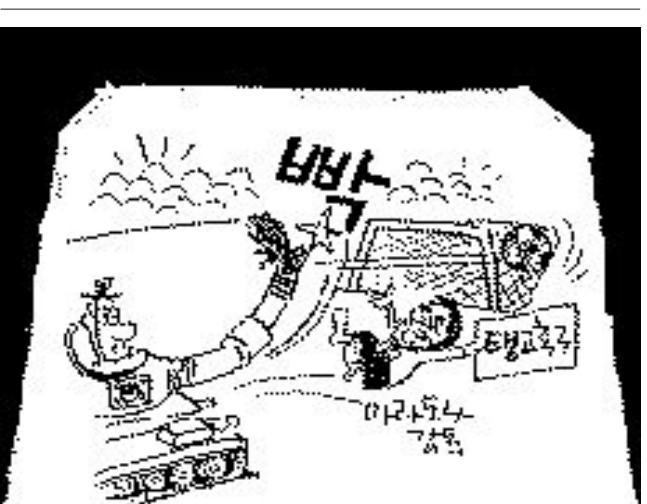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육군보병학교 측이 그 동안 불발탄 제거작업이 완료돼 민간사업자에게 인계된 지역에서 불발탄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부지 인계에 따른 재협약 체결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이 같은 방

침을 철회하고 나머지 65만2000㎡에 서의 불발탄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 등은 민간사업자 변경, 불발탄 제거 지지부진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골프장 조성 등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1단계 사업이 오는 2012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日만정

- 김종우



그쪽이 ‘탱고’면 우린 ‘탱크’다

나로호 3차 발사 기제작 상단 활용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나로호 2차 실패에 따른 3차 발사 진행과 관련, 국내에서 3차 발사에 대비해 나로호 상단 부분은 이미 제작돼있는 만큼 러시아 측으로부터 1단 로켓이 제공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흐루니체프 사(社) 간 2004년 서명

된 계약서에 따라 2회 발사 중 어느 하나가 발사임무에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면 항우연은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3차 발사 요구에 대해 러시아 측은 수용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러시아 측에 지불하는 계약 금액의 5%(약 10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감정가 이하

- 범례건물, 삼부지구 종점지, 대지1010㎡(305평) 건평2996㎡(906평) 공시지가 2793평 매도41억
- 동구 6차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589평) 건평 2109㎡(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 매도25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원 매도 2억4천
- 마륵동 자연녹지, 대지 574㎡(166) 공시지가 5억 평도 5억8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점 275㎡(83평) 1억5백
- 총장로 5가 6층 건물 대지 33평 156 공시지가 3억 평도 5억5천
- 요양시설작전 학원지 16평 10평 건물 1442㎡ 경매감정가 18억 평도 6억
- 금남로 7동 6층 건물 대지 196㎡ 10평 매도 5억8천
- 순천시 대지 10 건평 243 공시지가 9억 평도 5억8천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 6층 건물 5억
- 광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 건평 173 대출 3억 평도 6억5천

매도·교환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56평) 건평461㎡(136평) 대출 1억 평도 2억5천
- 전원주택지 송산유원지 부근 196㎡ 사찰도 적합8800만원
- 목욕탕·모텔·상가·폐공동 대지 643㎡(195평) 건평 941평 전세 2억3천 원 670 대출 10억 평도 15억6천
- 나대지 흑석사 사거리 월곡동 주공 아파트 입구 준주거지 472㎡(143평) 공시지가 4억3천 평도 5억3천
- 화순도곡동 판리지역 394평 고관가능 3억2천
- 하남2지구 대지 62평과 임곡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환가능 5억3천
- 매월동 서평주택 부근 2314㎡(702평) 8억2천
- 광산구 우산동 2220평 하치잔동 다용도 22억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187평 공시지가 5억7천 평도 6억2천
- 송정리 소촌동 지구단위지역 2종주거지 403평 4억
- 병산, 화순군 사평부근 대지 268 건평 32평 8500만원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 연세동 현대 201㎡ 대출1억 교환가능 1억5천
- 주택 화순군 남주면 소재지 337㎡(101평) 2400만원
- 금남로 5가 우주면 총당 299㎡ 건물의 2층, 3층, 4층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장만채 체제’… 도교육청 혼란

우열반 폐지·무상급식, 당선자-인수위 ‘딴 목소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와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가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는 등 의견不合이 되면서 향후 도 교육청 정책 수립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 당선자는 “교과부의 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요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면서 “각 교육현장의 사정이 다른 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우열반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취임준비위원회측은 오전 업무 보고회가 끝난 뒤 “장만채 당선자는 우열반 편성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였다.

반면 금지돼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에 경고를 했으며, 앞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 당선자의 의견은 달랐다.

장 당선자는 “교과부의 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며, 교육 수요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면서 “각 교육현장의 사정이 다른 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우열반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취임준비위원회측은 오전 업무 보고회가 끝난 뒤 “장만채 당선자는 우열반 편성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였다.

또 취임준비위원회측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도교육청 간부를 질책했으며, 뇌남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교급식법상 유치원 무상급식은 제외돼 있으며,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장 당선자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관련법과 예산 등을 다시 검토해 보자”며 애매모호한 입장장을 보였다.

도 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와 취임준비위원회는 한 몸이니 다른 없는 데, 서로의 의견이 달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된다면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원에 징계 대상 전교조 교사 2명 포함 논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구 대상인 전남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준비위원회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장 당선자의 취임준비위원회 16명 가운데 12명이 전현직 전교조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전남도교육청에 지난 11일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냈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전남 공립교사 2명에 대해 징계의결로 요구했으나 유보된 상태다. 또 사립교사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장 교수상자다.

반면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은 교육정책을 기획·검증하는 정책 위원이며, B씨는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전남의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전남도교육청에 지난 11일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냈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전남 공립교사 2명에 대해 징계의결로 요구했으나 유보된 상태다. 또 사립교사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장 교수상자다.

교과부는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회의에 장 당선자의 취임준비위원회로 참석한 16명 가운데 징계요구 대상인 전교조 2명이었다.

반면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노이숙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전교조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 위해 일단 유보중”이라 고 밝혀 징계의결을 놓고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이날 참석한 취임준비위원회 16명 중 12명이 전교조 전·현직 간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중간교과교직간부는 모두 5명이다.

도 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징계대상 교원이 취임준비위원회로 참석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감사 받는 돈봉투 사건 “명단 공개 않겠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16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당선 축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교育감직을 그만두더라도(전달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감찰 등의 조사로까지 확대돼 저에게 명단 공개의 압박이 있다면 명단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단공개가 본래적인 비리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면 (공개)하지

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내가 직접 개선할 문제이며, 타 기관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감찰 등의 조사로까지 확대돼 저에게 명단 공개의 압박이 있다면 명단공개를 그만두더라도 이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봉투 연루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도 고려해 봤

으나, 이는 해당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고민”이라며 “내 사람으로 만들어 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당선자의 이 같은 명단 공개 불가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감사에 착수한 교과부 감사팀의 진상파악도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함평 다이너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잔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동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	남 0명	골석기문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 여 0명	웨이터, 웨이터스, 주부사원(30대)	경력, 신입
시설팀	남 0명	전기	전기설비기사 C~C